

광주시, 일 잘하는 공무원 파격 승진

근평·서열 얽매이지 않고 '성과'로 평가

민선 5기 들어 광주시의 인사 기준이 근무평정에서 업적 중시, 소외 직렬 및 여성 배려, 기피 부서 인센티브 등으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면 뒷순위라도 일단이 같은 기준을 중시해 다소 파격적인 발탁을 함으로써 기존 인사 패권에 변화를 주고, 느슨한 조직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인사명단 18면> 광주시는 4일 조직개편과 명예퇴직

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 승진대상자를 발표하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거나 국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공무원들을 승진시켰다. 대인시장 입구 사거리 좌회전 이 불가능한 교통 민원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끈질긴 협의 끝에 해결해 대인시장 상인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통안전과 김영수씨를 공업사무관으로, 야구장 신축예산 증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는데 공헌한 체육진흥과 정대경씨를 시설사무관으로 발탁했다. 이들 모두 승진 대상자에는 포함됐으나 순위가 중간 이하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4년까지 5급 이상 여성 관리직공무원을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5급 이하 승진자 88명 중 23명, 26%를 여성공무원으로 했다. 과거 자치행정국 등 특정부서 위주의 승진 관례를 깨고 현장에서 직접 민원과 부딪히는 부서의 직원들도 배려했다. 교통·환경·사회복지 관련 실과

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문화예술회관, 의회사무처 등 외곽 부서 직원들도 승진자에 포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승진인사는 그동안 소외받던 공무원과 일 잘하는 공무원을 동시 발탁해 조화와 균형에 주안점을 뒀다"며 "전보인사도 조직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개혁성 등을 고려하고 우수인력을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한편 동일부서 장기 근속자를 순환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총선 석패율제 도입 지역갈등 극복을”

이재오 특임장관 인터뷰

이재오 특임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정치적 역할이자 의무"라며 "내가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선다면 또 어떤 오해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도록 지원하는 데만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8 재선에서 당선된 뒤 나 때문에 당이 시끄러워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재임기간 동안에도 당무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정부의 주요 정책 및 법안 등이 국회에서 무사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

리교자 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독도 영토에 관한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일본 의원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영토주권 침해인 만큼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인돼도 독도 지킬 것 MB, 성공 대통령 돼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당분간 당내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울릉도·독도 방문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건국 이래 독도에서 잠을 자고 보초를 선 장관은 단 한 명도 없다"라며 "독도는 '쇼'를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현 정부의 강력 한 독도 수호 의지를 전 세계에 알

이 장관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역갈등은 정쟁의 씨앗이자 통일 역량 소실의 원인"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혁명적인 선거구도를 만들어 지역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갈등은 선거를 통해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권력을 만들어 타파해야 한다"며 권력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기획조정실장 문인·의회 사무처장 박병호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에 문인(53) 의회사무처장이 5일자로 임명된다. 김영선(53) 기획조정실장은 지방행정연수원 인력개발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새 의회사무처장은 박병호(49)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이 맡게 된다. 또 4일 오후 광주시정책위원회에서 불분경고 조치를 맡은 흥기남 전

광주시 도시디자인국장이 5일 명예 퇴직과 동시에 광주도시공사사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홍 전 국장은 "앞으로 광주도시공사가 구도심 재생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공사 수익 지역 재투자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4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서한을 무토 마사토시 대사에게 전달했다. 서한에는 여야 국회의원 130명이 서명했다. /연합뉴스

도교육청 우수, 전남도 양호, 광주시·교육청 보통

감사원, 155곳 감사

전남도교육청이 감사원의 자체 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감사원은 지난 3~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55곳을 대상으로 한 2010년 자체 감사 활동에 대한 심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심사결과는 우수·양호·보통·미흡 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남도교육청과 전북도는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은 전국 13개 기관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양호',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각각 '보통' 평가를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를 법조 출신 감사관을 공모·채용하는 등 조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전남도교육청과 전북도는 등 기관은 표창과 함께 1년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감사원은 이번 심사결과와 공감법에 따라 감사책임자를 개방형으로 임용한 31곳의 평균 점수가 미임용기관(54곳)보다 4.8점 높았으며, 우수·양호 등급을 획득한 기관수도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순위와 등급은 각 기관의 감사 조직·인력 운영, 감사 활동·성과, 사후 관리 등 20개 항목을 기준으로 측정, 결정했다. /윤영기자 penfoot@

광주시 실·국장 프로필

문인 기획조정실장



올라운드 플레이어, 기술도시 합격으로 공직을 시작했으나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적인 신망이 두둑다. 분석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며 강인한 성격이지만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력도 지니고 있다. ▲광주일보 ▲한양대 토목공학과 ▲광주시 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 ▲의회사무처장

박병호 의회사무처장



주목받는 지역 출신 40대 고위공직자. 25살의 나이에 행정고시(30회)에 합격한 뒤 바로 2년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다. 향후 지역을 대표할 공직자로 성장할 잠재력이 갖췄다. ▲인성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정자치부 공개행정과장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조직정책관

흥기남 도시공사사장



이론·실무를 두루 갖춘 전천후 공직자. 민선 5기 첫 도시디자인국장으로 광동 군 훈련장 이전, 광주U대회 선수촌 조성 등 최대 현안을 무난하게 처리했다. 강력한 추진력과 함께 섬세한 일처리가 장점이다. ▲전남기계공고 ▲조선대 ▲행정안전부 지역정책팀장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남구 부구청장

보상 담보 '빛그린산단' 돌파구 찾나

8일 국회서 정부-민주당 의원 간담회

보상이 미뤄져 차질을 빚고 있는 '빛그린 산업단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8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민회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빛그린 산단 보상 추진을 위한 정부-민주당 의원 간담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빛그린 산업단지 보상계획과

해결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빛그린 산업단지는 광주 광산구와 전남 함평군 일원 4.08km에 60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산업과 디지털 정보기전, 자동차산업, 첨단부품소재, 생물·의약 등 최첨단산업이 들어서는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2007년 12월 국토해양부에 산단 조성을 건의해 지난 해 9월 단지계획이 승인됐고, 당초 12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토지주택공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보상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과 함평군 일야면을 합쳐 모두 3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주택 증축과 토지거래 등 재산권이 묶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빛그린산단과 함께 승인을 받은 국가산업단지인 '대구 사이언스파크'와 동시에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의원은 "LH공사 사장으로부터 올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는 빛그린산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정부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즘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약오리 백숙

항암육수 샤브샤브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쉐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솔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점심특선**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봉선동 월드덕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는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